

제16회 전주프로젝트 선정작 공개

전주국제영화제, 3개 부문 국내외 프로젝트 22편 선정... 제작 단계 맞춤형 지원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가 제16회 전주프로젝트 선정작을 공개했다.

21일 전주국제영화제에 따르면 전주프로젝트는 전주국제영화제가 영화산업과 연계를 강화하고 영화제의 기능을 확장하기 위해 마련된 산업 프로그램으로, 새롭고 창의적인 국내외 독립예술영화를 발굴해 제작을 지원하고 완성 후 국내외 배급 성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영화가 배급되는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해왔다. 역대 전주프로젝트 지원 사업을 통해 세간의 주목을 받은 작품으로는 김양희 감독의 <시인의 사랑>(2017), 이승원 감독의 <세자매>(2020), 유지영 감독의 <나의 피부상이 연인>(2022), 김태양 감독의 <미망>(2023), 로이스 파티노 감독의 <삼사리>(2023) 등이 있다. 올해로 16회를 맞는 전주프로젝트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약 한 달간 '전주랩', '전주시네마프로젝트: 넥스트에디션', '워크인프로그레스' 등 3개 분야의 프로그램 공모를 진행한 바 있다.



전주국제영화제가 제16회 전주프로젝트 선정작을 공개했다.

를 구현하는 작품들이 많았다"며 "발굴과 육성"이라는 전주랩의 근본 취지에 좀 더 부합되는 작품으로 4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주랩
'전주랩'은 다양한 한국영화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기획개발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올해 공모를 통해 총 111편의 프로젝트가 접수됐다. 이는 104편이 접수된 지난해에 비해 7편(6.7%)이 증가한 수치다.

△전주시네마프로젝트: 넥스트에디션
'전주시네마프로젝트: 넥스트에디션'은 국내외 장편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제작 투자 프로그램 '전주시네마프로젝트'의 작품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 프로그램이다. 올해 공모에는 국내 31편과 해외 27편으로 총 58편의 프로젝트가 접수됐으며, 이는 총 50편(국내 29편, 해외 21편)이 접수됐던 지난해에 비해 8편(16%)이나 증가한 수치다.

올해 '전주시네마프로젝트: 넥스트에디션' 피칭 심사 진출작은 국내 4편, 해외 3편이 선정돼, 제16회 전주프로젝트 기간 중 피칭 심사를 진행한다. 피칭 심사 진출작 중 최종 선정된 프로젝트는 국내외 작품 각 1편을 선정해 최대 1억 원의 제작 투자를 지원하며, 다음 해인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월드 프리미어로 상영된다.

올해 피칭 심사 진출작 중 국내 프로젝트는 사회 속 소외된 이들의 고민과 연대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색 알 마론 감독의 <빨대>, 학교 사육장 속 동물들을 구출한 학생들의 이야기를 담은 유재욱 감독의 <산양들>, 싱글 라이프를 즐기던 한 남성의 집에 딸과 아들이 들어오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고봉수 감독의 <영경씨>, 일본 극우 집단의 표적이 된 사업가의 반격을 그린 이일하 감독의 <호루몽>이다.(부문별 작품명 가나다순)

해외 프로젝트는 두 무용수가 만나 공동의 춤을 창작하며 사회주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마르타 포피오다 감독의 <Body in Plural>, 시력을 잃은 예술가의 이야기를 다룬 블레이크 윌리엄스 감독의 <I've Seen Water>,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 경계에 거주하는 소년의 성장 이야기를 담은 클라리사 나바스 감독의 <The Prince of Nanawa>가 선정됐다.(부문별 작품명 알파벳순)

△워크인프로그레스
지난해 첫선을 보인 '워크인프로그레스'는 한국 장편 독립예술영화의 완성도 향상 및 국내외 배급 성과를 도모하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올해 총 18편의 프로젝트가 접수됐다.

올해 '워크인프로그레스' 선정작은 총 5편으로, 선정작은 제16회 전주프로젝트 기간 중 해외 영화제 프로그래머를 비롯한 국내외 영화산업 전문가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시사를 진행하여 피드백 및 컨설팅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심사를 통해 1편을 선정해 배급지원금 5백만 원을 수여한다.

올해 '워크인프로그레스'에 선정된 프로젝트는 추극 감독 이우형과 FC안양 팀의 K리그 도전을 담은 나바투 감독의 <두 번째 그라운드>, 치매 증상을 보이는 어머니의 가계부를 보며 어머니의 존재 의미를 찾아가는 성승택 감독의 <어머니의 가계부>, 영화감독인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이야기가 전개되는 김경래 감독의 <이인>, 대마가 불법 미약인 대한민국에서 대마초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이수정 감독의 <풀>, 사체 빛을 갖기 위해 요양원에 있는 어머니를 데려올 수밖에 없었던 인물의 이야기를 그린 황승기 감독의 <홍이>이다.(부문별 작품명 가나다순)

'워크인프로그레스' 선정작 중 다큐멘터리 작품은 장르 특성에 맞는 체계적 지원을 위해 SJM문화재단과 전주국제영화제가 운영하는 'K-DOC CLASS' 사업과 연계하여 '러프컷 모니터링' 사업 일환으로 진행된다.

△러프컷 내비게이팅(K-DOC CLASS)
'러프컷 내비게이팅'은 SJM문화재단과 전주국제영화제가 운영하는 다큐멘터리 편집 교육 프로그램인 'K-DOC CLASS' 사업 중 하나로, '러프컷 내비게이팅' 선정작은 약 두 달간 다큐멘터리 전문가가 전담 매칭되어, 작품에 대한 집중 컨설팅을 제공한다.

올해 '러프컷 내비게이팅'에는 나바투 감독의 <두 번째 그라운드>, 박희진 감독의 <방랑과 플라나리아>, 성승택 감독의 <어머니의 가계부>가 선정됐다.(부문별 작품명 가나다순)

한편, 선정작을 공개하며 화제를 모은 제16회 전주프로젝트는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기간 중인 5월 5~7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 /장은성 기자

'뱀사골 고로쇠 약수 축제' 남원서 개최

3월 2일 뱀사골 일원서 약수제 길놀이 행사·견기대회 등 다채롭게 진행

남원시에서는 오는 3월 2일 오전 10시 제36회 고로쇠 약수축제가 산내면 뱀사골(반산 주자장)일원에서 개최된다.

산내면 발전협의회(회장 최종식)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고로쇠 약수 축제는 면 농약단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약수제 길놀이 행사와 약수제례, 기념식, 와운마을 천년송 걷기대회, 즉석참여 노래부르기, 초청 가수공연이 펼쳐진다.

또한 고로쇠를 활용한 이벤트 및 체험(고로쇠 먹고 고풍지르기, 고로쇠 시음 체험 등), 경품추첨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 등이 펼쳐지며, 지역 먹거리장터, 농산물판매장과 저렴한 가격에 고로쇠 약수를 구입할 수 있는 할인 판매장도 운영된다.

특히 올해 고로쇠축제에서는 산내면 자체적으로 귀농귀촌인과 주민들이 함께 만든 마을 주민장터를 행사장에 접목시켜 풍물로 장을 열고 준비해온 소박하고 정겨운 음식을 나누며, 농산물과 솜씨 좋은 공방을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몸에 좋은 고로쇠를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무제한 고로쇠 음수대를 마련하였고, 딱딱도 1,000그르 한정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지리산 천년송 걷기대회는 소액의 참가비를 내면 고로쇠 1병(500ml) 제공, 산내면 관



제36회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 약수 축제 기념 지리산와운마을 천년송 걷기대회 포스터

내 식당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식사권을 제공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이 태국 해외 현지에서 전주한지를 활용한 수묵화 워크숍을 진행했다.

전주한지 활용 해외 수묵화 워크숍

한국전통문화전당, 태국 학생들 대상 전주한지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이 해외 현지에서 전주한지를 활용한 수묵화 워크숍을 진행하는 등 전주한지 세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1일 전당에 따르면 전주한지의 복원 등 원형 발굴에 집중하며 국내시장에 머물렀던 전년도와 달리 올해는 품질 고도화와 세계화를 목표로 전주한지를 해외로 확장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지난 1~2일 두 차례에 걸쳐 태국에 위치한 대학(Rajamangala University of Technology Rangsit Faculty of Fine Art)에서 전주한지를 활용한 수묵화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23~28일까지 6일간 대학 내 미술관(FAG art Gallery in Rajamangala University)에서 워크숍 작품을 전시한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국제수묵비엔날레의 국

제수묵제이던시 후속 프로그램으로, 태국 학생들에게 수묵화라는 영역을 통해 전주한지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향후 작품 활동에 소재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이에 전당은 워크숍을 위해 수묵화 작업에 적합한 전주한지를 제공했다.

워크숍에 참여한 학생 및 작가들은 "전주한지의 소재 특성과 우수성을 이해하는 시간이 있었다"며 "이를 통해 예술 세계의 깊이를 더 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김도영 원장은 "이번 수묵화 워크숍은 세계의 다양한 작가들에게 전주한지를 알릴 수 있는 기회의 시작"이라며 "전주한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 기획 등 산업적 성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태권도진흥재단, 취약계층 대상 '태권도 희망나눔 교실' 운영

3월 6일까지 참가단체 모집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종갑)은 체육활동의 기회가 적은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태권도를 통한 건강 증진 및 태권도 보급에 이바지하고자 '2024 태권도 희망나눔 교실' 사업을 추진한다.

태권도 희망나눔 교실은 노인, 다문화가정, 장애인, 탈북자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평소 태권도를 접하기 힘든 대상자에게 태권도 수련 참가 기회를 제공하는 공익사업으로 접수는 21일부터 3월 6일까지 진행된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올해 전국에서 8개 기관·단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곳에는 태권도 지도사범을 파견해 5월부터 각 20회의 태권도 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태권도 희망나눔 교실에서는 태권도 기본 기술과 격파, 품새, 겨루기, 자기방어 등 대상별 운동능력과 연령 등에 맞는 체계적인 수업을 구성해 수련활동을 진행한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수련활동의 질을 높이고 선정된 기관·단체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태권도 지도사범 파견을 비롯해 태권도복과 수련 용품 등 교실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종갑 이사장 직무대행은 "국기 태권도는 남녀노소 국민 누구나 수련할 수 있는 생활 속 운동이다"며 "평소 태권도를 접하기 쉽지 않은 여건에 계신 분들에게 찾아가서 지원하는 만큼 많은 단체들의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우주=전문선 기자

JMA 서울 스페이스, 대관 신청자 선정 나서

JMA 서울 스페이스(이하 서울관)는 2024년도 서울관 대관 신청자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1차 행정심사는 미술관 검토로 지원신청 부적격자 등 행정상의 결격사유가 있는 신청자를 추린다.

이후 2~3차 전문가 심의가 양일간에 진행된다.

심사는 미술평론가와 독립큐레이터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 5명에 의해 이뤄진다.

2차는 서류 심의로, 신청자들이 제출한 서류로 평가하며, 합격자는 23일 개별통보 및 전북도립미술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

이어 3차 전문가 인터뷰 심의에서는 5명의

전문가들이 면접심사를 진행한다. 최종 합격자는 28일 발표된다.

다만, 전북미술가들에게 보다 많은 전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최종합격자 16명(팀)은 2025년부터 대관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한편, 전북도립미술관은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심사총평과 작가별 심사평을 공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선 전북도립미술관장은 "서울관 작가 선정에 있어 공정한 심의와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관 담당자(063-290-6873)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